

# 불교 문화생태계 진화위한 ABC부터 구축을

뉴 미디어 시대 대응 필수

불교기록문화유산 공유가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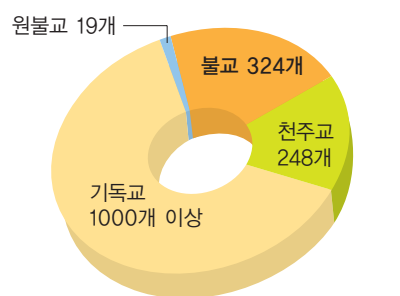
미래사회의 핵심은 복지와 문화로 압축된다. 불교계에서도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포교와 전법이 오랜 과제였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보편화 되고 있는 뉴 미디어 시대에 맞는 불교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각 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불교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거론된 것은 불교문화아카이브 구축이다. 이를 통해 누구나 쉽게 불교를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뉴미디어 기반의 불교문화콘텐츠 활성화 전략연구’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백승국 인하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뉴미디어 시대의 흐름 파악을 강조했다. 스마트폰의 확산 등 시대 흐름을 이해하면서 아카이브를 구축해야 불교문화콘텐츠 활용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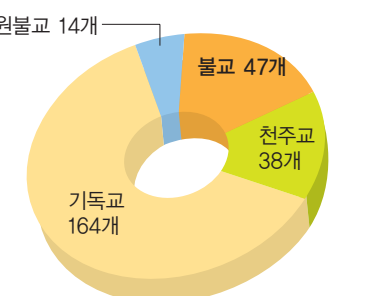
백 교수는 “불교문화콘텐츠는 오랜 역사의 문화원형이 존재하고 불교문화유산이 풍부하다는 것은 강점이다. 그러나 디지털

〈안드로이드 마켓의 종교 어플 수〉



애플과 안드로이드 앱 관련 본지 집계. 불교콘텐츠 수는 이웃종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애플 앱스토어의 종교 어플 수〉



마인드가 취약하고 뉴미디어 콘텐츠 활용이 미약한 것은 약점이다”고 지적했다. 백승국 교수는 또 타 종교에 비해 불교콘텐츠의 생태계가 취약하나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통해 불교문화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고, 이미 개발된 다양한 콘텐츠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불교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콘텐츠를 포교용·교양용·상업용으로 분리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카이브를 구축해 용도별로 활용할 수 있다면 불교문화콘텐츠가 더욱 확산될 것이다”고 말했다.

아카이브 구축으로 스마트폰 등 뉴미디어에 활발하게 대응하면 오프라인콘텐츠

에 편중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예비 불교신자와 문화에 관심 있는 비불자들에게도 불교를 전할 수 있다.

김윤길 동국대 불교학술원 행정지원실장은 ‘불교 문화생태계 진화를 위한 ABC 전략’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섰다. ABC전략은 기초토대라는 의미와 함께 ‘불교 기록 문화유산 아카이브(Archives of Buddhist Culture)’를 뜻한다.

김 실장이 제안한 ABC 계획은 ▷집성사업(자료의 조사·분석, 텍스트 정본 작업, 원전 영인 작업) ▷역주사업(집성된 자료의 한글 번역, 주석, 해제, 영문번역) ▷활용사업(데이터베이스 구축, 웹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스마트 앱 개발)으로 구성된다.

〈대승기신론〉을 기본정보로 원문 이미지와 텍스트를 번역하고 해제하는 것이 1 단계라면, 관련 경전과 논문, 잡지 등을 링크하는 것이 2단계 작업이다. 아카이브 구축 3단계는 음성·영상, 스마트미디어 등의 다양한 활용이다.

김윤길 실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불교 문화생태계에 흐르는 물과 같다. 불교 문화생태계가 뉴미디어 시대에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진화하기 위해서는 불교 기록 문화유산을 흐르는 물처럼 만들어야 한다”며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뉴미디어 플랫폼에서는 모든 콘텐츠가 디지털 방식으로 공유되기 때문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불교 기록 문화유산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교 문화생태계 진화를 위한 기본적 ABC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일본은 20세기 전반기에 신수 대정대장경을 편찬해 세계 최고의 불교학 기반을 만들었고, 문학·영화·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불교문화콘텐츠를 생산했다.

김 실장은 “ABC 사업은 지속적으로 학술·문화적인 2차 콘텐츠의 재생산이 가능한 사업이며 역경 전문가 등 불교계 인력양성에 있어서도 기여할 바가 크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smle2@daum.net

## “스님이 정치 얘기하면 이렇게 오겠어?”

법륜 스님 ‘희망세상 만들기’

100강 마치고 독일 출국

법륜 스님은 ‘2011 법륜 스님 희망세상 만들기’의 마지막 100번째 강연을 12월 6일 강동구민회관에서 가졌다. 행사는 스님의 다른 강연들과 마찬가지로 시작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이날 스님은 한 참가자의 질문을 통해 보수 언론들의 공세에 대한 속내를 내보냈다.

강연에 참가한 한 시민은 “신문을 보고 스님이 왜 정치를 하나 싶었다. 현장에 와보니 인생 상담도 해주니 참 감명 깊다”고 말했다. 이에 스님은 “그분들이 정치부 기자다보니 내가 하는 발언을 갖고 그렇게 쓰는 것이다. 생각해봐라. 스님이 인생 상담을 해주니까 바닥에 앉아서라도 듣지, 정치 얘기하면 이렇게까지 앉아서들 듣겠냐”라고 말했다.

이 참가자는 “요새 손자들 키우기가 힘들다. 스님 강연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보육정책에 대해 비판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법륜 스님은 “그런 뜻에서 얘기했다가 내가 이렇게 됐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와서 묻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마음만 바뀐 것 같아 싫었다. 세



상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했다가 이렇게 됐다. 이런 걸 기성 정당이 못하면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야 된다 이런 뜻에서 얘기한거다”라고 설명했다.

법륜 스님은 이날 강연을 마치고 7일 오전 독일로 출국할 예정이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신당 창당에 차질이 생기자 해외로 출국한다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스님은 독일 출국 이유를 예정된 일정이라고 밝혔다.

법륜 스님은 “독일에는 스님도 별로 없어서 와달라는 요청이 많다. 신문에 보도 된 것처럼 뭐가 안돼서 가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법륜 스님은 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출국했다. 스님은 8일 뮌헨, 9일 베를린, 10일 함부르크, 11일 뒤셀도르프를 거쳐 12일경 귀국할 예정이다. 스님은 내년 1월 인도 성지순례에 나선다.

박기범 기자

## 10·27법난심의위, 위원장 해임 파문

심의위원 등 일방 결의 vs 영담 스님 ‘의결정족수도 안돼’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회위원회가 심의위원 교체로 파행을 겪고 있다.

사건은 12월 6일 열린 피해자 명예회복심의회위원회 심사회에서 임기만료를 앞둔 위원들이 위원장 영담 스님의 위원 추천안에 ‘월권’이라고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기존 위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 해임까지 결의했다. 일부 피해자 스님들이 비상대책위를 지지하고 나서며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위원인 삼보 스님(동국대 이사)은 회의 시작 직후 “위원회 논의도 없이 신임위원이 추천된 경우가 무엇이나”고 따졌다. 윤원호 위원(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 前 국회의원)도 삼보 스님의 주장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에 위원장 영담 스님은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했다.

영담 스님의 퇴장 후, 임기만료로 해촉대상 위원인 삼보 스님, 윤원호·조남진·허남오·이명묵 위원 등은 ‘위원장 해임’을 박수로 의결하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했다.

신임 위원에는 법타 스님(동국대 정각원장), 이춘호(EBS 이사장), 김상희(국회

의원, 민주당), 정문현(국회의원, 한나라당), 최재천(번호사) 등이 심의위원 후임으로 내정돼 있다.

삼보 스님은 성명서에서 “10·27법난 피해자와 별 관련이 없는 영담 스님이 위원장이 되면서 월권행위와 중언중범을 위배하면서까지 사조직 같이 위원회를 파행 운영했다. 이에 따라 본 위원들은 영담 스님의 위원장 해임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윤원호 위원 등도 “법난심의위원회는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특별법상 기간이 연장된 이상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영담 스님은 “현행 시행령상 위원 추천은 총무원장스님의 권한이 아니다. 국무총리 동이나 총무원장스님의 동의 및 재가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지도 않다. 위원 추천은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해명했다. 스님은 “위원장 해임은 폐회 후 진행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의결정족수도 되지 않는다. 일부 위원들의 심의위원 교체에 대한 항의일 뿐”이라며 “돌발행동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 불교환경·생태운동 에너지사업으로

내년 2월 ‘숲과 에너지’ 창립

불교계와 친숙한 자원인 숲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을 추진하는 시민모임이 2012년 2월 발족된다.

‘시민모임-숲과 에너지 창립준비모임(준비위원장 김희옥)’은 12월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창립취지와 활동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들은 불교계가 풍부한 녹색자원을 보유하고도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

불교계 풍부한 숲 자원 활용해

지역과 상생하는 수익모델 창출

하는 점을 안타깝게 여긴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김희옥 창립준비위원장은 “교계는 지금 사찰에너지조차 지혜롭게 풀지 못하고 있다. 규모가 큰 전통사찰의 에너지 문제는 자성과 해선의 과제”라며 “‘숲과 에너지’를 주제로 좀 더 세분화된 전문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준비모임은 창립 전까지 숲과 에너지 관련 분야 교육과 전문가 및 조직체와의 정책네트워크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가

정’ 불교 숲-에너지 이용 종합계획’과 ‘사찰에너지 이용 자가진단 매뉴얼’을 개발할 예정이다. 매뉴얼 개발에 이어서는 사찰 에너지 이용 실태 조사와 맞춤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제안, 숲-에너지 관련 종합 사업 가능지역을 선정에 나선다.

즉, 사찰과 에너지·농업·관광 등이 연계된 사회적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수익이 발생하는 ‘생태계’를 만들 계획이다. ‘시민모임- 숲과 에너지’는 참여불교 재가연대가 2011년 2월 노동부 주최로 에너지분야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에 참여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모임에는 윤남진 참여불교재가연대 前 사무처장, 김인택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이사 등 교단자성센터 인사와 강충경 바이오매스 전문가, 박승옥 에너지생태건축협동조합 공동대표, 안대광 신재생에너지분야 기업가 등이 합류해 활동 중이다.

김희옥 창립준비위원장은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기존 불교환경·생태운동의 빈곳을 채우겠다”며 “사회운동 방식의 환경·생태 운동과 손잡고 사회적 비즈니스를 창출해 사찰·종단·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 마주협, 이주민정책 토론회 개최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상임공동대표 지관)는 제2회 불교계 이주민 정책 토론회를 12월 19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불교계 이주민지원활동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지원단체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점검한 다. (02)720-7095 박기범 기자



“일방적인 학과 개편 반대”

학과 개편을 반대하는 동국대 학생들이 12월 5일 총장실을 점거하고 개편안의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7일 김희옥 총장과 면담을 가졌으나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글=박기범 기자·사진=박재완 기자

# 법당 및 사찰 전각 마루 불사

틀어지거나 파손된 마루바닥을 시공초기의 모습으로 시공 및 복원합니다.

10여년간 각 시도 대형 체육관 및 관공서, 학교, 공연장 등 나무로 되어있는 마루를 원목 그대로 살려 코팅하는 업체로서, 이제 佛緣을 입어 스님들께 도움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 마루 시공불사



\*보양 작업

\*마루절거 및 하부 보강

\*샌딩 마친



\*틈 메우기

\*도장작업 2회

\*완료

### 강화마루



### 필름온돌



법당 및 요사채 등 온돌이 필요한 곳에 안전하고 빠른 시공 설치 하여 드립니다

밖 은 세 상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474-28 2층 | 전화 02)433-5121 / 011-309-2119